

나들이 물가 고공행진...외출하기 겁난다

광주 의류·신발 물가 6% 경중 '11년만에 최고'
호텔숙박료 13.7%·휴양시설이용료 7.7% 올라



“금리가 올라 대출 상환도 벅찬데, 물가가 너무 치솟아 가족들과 나들이 하는 것도 여의치 않네요.”

오는 28일 가족들과 함께 순천과 여수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박모(36)씨는 여수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3인 가족의 1박 숙박비는 27만원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는 3만원이다.

아쿠아플라넷 여수 입장권 2인 6만6800원, 호텔 조식 2인 6만원, 해상케이블카 티켓 2인 4만8000원 등 단출한 일정에도 47만480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유비와 점심 및 저녁 식사, 간식 등을 더하면 60만~70원은 하루아침에 쓴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곧 가정의 달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물가가 크게 올라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직장인 문모(여·26)씨도 걱정이 앞선다. 날씨가 풀리면서 남자친구와 광주 곳곳과 주변 도시로 자주 데이트를 떠나고 있는데, 외출 때 입을 옷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어서다.

문씨는 “옷 몇 벌만 사도 30만~40만원이 금방 나간다”며 “언제 이렇게 옷값이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에 접어들었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외출을 자제하게 만들고 있다. 봄을 맞아 기분 전환을 위해, 또는 출근할 때 입을 옷을 큰 마음 먹고 구매하려 나섰지만, 훌쩍 뻗은 옷값에 당장 구매가 겁이 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밖에 외식물가와 숙박비 등 나들이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광주지역의 의류 및 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주의 의류 및 신발 물가는 2018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기까지 줄곧 0~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2019년 4~6월엔 오히려 0.1~0.2%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의류·신발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다음 달인 지난해 5월에는 3%대, 작년 11월에는 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7%로 둔화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아동복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의류·신발 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아동복·유아복 물가상승률은 9.63%로 높았다.

31개월 된 아들을 뒀다는 백모(여·39)씨는 “다음 달 여행을 가려고 아들 외출복을 사러 갔는데 어른 옷 가격과 차이가 없었다”며 “뒤돌아 서면 커버리는 어린 아이들의 옷이 이렇게 비싸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밖에 여자 의류 물가는 4.36%, 남자 의류는 3.68% 올랐고 기타 의류와 의류 장신구는 4.12% 올랐다. 신발 물가 상승률은 6.1%였다.

1박 2일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숙박요금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대비 호텔숙박료(13.03%), 콘도이용료(5.92%), 휴양시설이용료(7.60%) 모두 큰 상승 폭을 그렸기 때문이다.

광주경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들이와 출근 등 외부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류와 여행 수요가 확대돼 관련 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로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진 상태에서 물가마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지난 21일 열린 2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를”

광주은행 2분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3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각 부문별 우수영입 사례를 공유하고, 올 1분기 경영실적과 2분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백재훈(주)한국리서치 마케팅본부장을 초청해 '변화하는 조직문화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경기둔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은행산업 또한 저성장 및 자산건전성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며 “현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의 인식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약화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은행 수익기반에 불리한 시장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은행장은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 PB고객 및 우량자산 증대를 통한 성장성 유지, 핵심예금 증대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올 2분기 위기 대응 능력 확보와 재무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전성 관리에 중점 ▲안정적 수익-비용 구조 강화 ▲신용카드, WM, 외환, 신탁 등 기반사업을 통한 비이자 부문 영업 강화를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과 금융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멘트값 인상분 미반영...레미콘 업계 “납품할 수록 손해”

광주·전남 업계 “이달부터 m³당 6000원 인상기로 합의”
단가 인상 안되면 영세업체 줄도산...납품 차질 등 혼란

봄철 건설 성수기를 맞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약속한 레미콘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아 지역 레미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 화순 등 광주·전남지역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업계는 대한건설자재지협협회와 올해 1월 납품분부터 시멘트 인상분을 우선 반영해 m³당 5000원을 인상, 이달부터는 기타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m³당 6000원을 인상기로 합의했다.

당시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20% 인상이 필요했으나, 지역 레미콘업계는 건설업체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13% 수준인 m³ 당 1만 1000원만 인상했다.

하지만 지역 내 일부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 오르고 있음에도 이달부터 올려주기만 레미콘 납품대금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서 레미콘업계가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최근 2회에 걸쳐 해당 건설사 레미콘 구매 담당자들에게 이달 납품분부터 단가 변경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업무

협조 문서를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팔면 팔수록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악의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멘트 수급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 크다.

이처럼 시멘트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는 ‘저단가 건설현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납품중단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레미콘업계의 분위기다.

또 광주·전남의 레미콘업체는 5개의 중견업체를 빼놓고 모두 소규모로, 지역 업체의 영업이익 또한 매출 대비 3% 수준을 밑돌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 측은 “적자를 보고 경영난에 몰리면서까지 건설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지역 관공공사와 산업건설 현장의 납품 차질 등 혼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중기 ‘자금줄’ 중기공제기금 늘려야

광주·전남 지난해 기금 대출액 440억...전년비 29% 늘어
지자체 예산 소진에 신규 대출 안돼...중기 대책 마련 요구

고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에 처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기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액은 2020년 277억원에서 2021년 341억원으로 23.1%(64억원)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0%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제기금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부금잔액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1984년 도입돼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광주·전남에서는 1500여개(광주 900개·전남 600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공제기금 대출이 증가한 것은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공제기금은 무보증 신용대출 가입자의 경우 단기운영자금(신용·담보) 대출, 어음이거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 어음수표 대출, 상

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도어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대출자의 일부(2%포인트)를 지원해주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대출 증가에 따른 광주시, 전남도의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모두 소진돼 신규 대출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차보전은 대출업체에 1년간 매월 대출이자 2%포인트를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올 예산(광주 2억5000만원·전남 1억원)은 지난해 대출업체의 잔여기간과 올해 신규업체 대출 지원으로 지난 2월 이미 조기 소진된 상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기업들의 신규 대출 지원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의 한 중소기업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던 중 지원 소개로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예산이 소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3고(高)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점에서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장애인의날 맞아 체육대회 봉사활동

효성첨단소재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최근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 ‘영락에니아의 집’을 찾아 체육대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었던 효성첨단소재 임직원들의 ‘영락에니아의 집’ 대면 봉사활동은 이날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엔 전달된 후원금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기관 내 30명의 장애아동과 40여명의 시설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나눔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현상 효성 부

회장은 “장애 아동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자활과 자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영락에니아의 집과 2012년 인연을 맺고 임직원들의 식사 도우미 활동과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속적인 후원 공로를 인정받은 효성첨단소재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64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3	6	9	18	22	35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48,168,106	1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8,858,049	62
3	5개 숫자일치					1,295,267	3,296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665
5	3개 숫자일치					5,000	2,525,390